동지해운 자기소개서

2027 신채사관 지원자 김영준

[성장과정]

싱가포르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제게 유연한 사고와 글로벌 소통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얻었고, 모르는 표현이 나와도 대화의 흐름으로 의미를 유추하며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승선 실습 때도 외국인 선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고, 이는 친밀감으로 이어져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러한 열린 시각은 규율이 엄격한 해양대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환경에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했고, 윈드서핑 동아리 회장과 예도대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와 품행단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나아가 해사대학 1 시설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조직의 질서를 지키려면 엄격한 규율과 솔선수범이 필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의 규정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유연하게 소통하되, 안전과 직결된 원칙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의 중심을 잡는 주도적인 성격입니다. 단체생활에서는 사소한 공지 누락이나 오해로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순간 저는 방관하지 않고 먼저 행동합니다. 제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먼저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직 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팀원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으며, 규율과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단체생활에서 결속력을 다지는 저만의 무기입니다.

반면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실행력이 강점인 만큼, 속도를 우선하다 세심함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학과 과제에서 속도에 치중하다 세부 조건을 놓친 적이 있었고, 속도만큼 완벽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 시작 전 숙지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끝난 후에도 리스트와 대조해 누락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금은 실행력에 꼼꼼함을 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지원동기]

IMO 를 중심으로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며 해운 산업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 운용을 넘어 친환경 연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해기사로 성장하고자 동지해운에 지원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DF LNG 추진선 실습이었습니다. LNG 벙커링 작업에 참관·보조 인력으로 참여하며 안전 점검부터 탱크 압력·온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기관사의 꼼꼼한 확인 위에서 이루어짐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LNG 벙커링·연료공급시스템 설계 교육을 이수하며 관련 기기와 연료공급 절차를 배워 현장에서 보조했던 작업을 설계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동지해운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입사 후 포부]

동지해운은 40 년 이상 축적한 가스 운반선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MOL 과 LNG 선박 해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LNG 전문 인력 양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MOL 의 LNG 선박에 승선하여 국제적 기준의 운항·관리 체계를 익히고, 실습과 KRISO 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검증하며 LNG 전문 기관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담당 기기의 구조와 운전·비상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익히고 글로벌 선사의 안전 문화를 배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경험이 쌓인 후에는 정비 이력을 바탕으로 설비의 이상 원인을 판단하는 역량을 키우고, 상위 면장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쌓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MOL 의 선박 검사와 공무 등 육상 지원 분야까지 이해하는 전문가로 성장하여, LNG 전문 인력 공급 선두 기업이라는 동지해운의 입지를 함께 다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